

# 전주매일

금연상담전화 | 1833-9030  
 TEL: (063) 859-2400 ~ 2410 FAX: (063) 859-2414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16년 8월 23일 화요일 (음 7월 21일) 제1628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22일(한국시각) 브라질 리우 마라카낭 주경기장에서 열린 2016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폐막식에서 깃털로 장식된 원색적인 무대가 펼쳐지고 있다. <관련기사 13면>

## 도내 초교 급식 식품비 전국 꼴찌

한끼당 1778원으로 상위권인 서울시·전남도와 1000원 차이  
 식품비 지원에서 전북은 제외... "지역·학교별 격차 줄여야"

도내 초등학교 '급식 식품비' (급식비 중 식품재료의 구매단가)가 전국에서 최하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신문은 지난 21일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에 식품비 내역을 정보 공개 청구한 결과 13개 시·도 5,160개 초등학교의 한 끼 평균 식품비는 2,350원이었다고 밝혔다. 2,000원대인 곳이 3,181개(61.7%)로 가장 많았고 1,389원(26.9%)은 2,000원 미만이었다. 3,000원대와 4,000원대는 각각 577개(11.2%), 13개(0.2%)였다. '식품비 별도 공개 불가'를 일컫는 대전·울산·대구·부산은 제외했다. 평균 식품비가 전국 상위권인 서울시와 전남도는 한 끼당 각각 2874원, 2,894원인 반면 전북도(1,778원)는 이들과 1,000원이 넘는 차이를 보이며 전국 최하위에 머물렀다.

전북도에 이어 세종시(1,969원) 역시 상위권과 상당한 격차를 보였다. 전국에서 2개 지역에 사는 아이들만이 '1000원대' 식품비를 적용받는다라는 의미로 거주지에 따라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질 낮은 급식에 노출된다는 뜻이다. 지역별 식품비를 보면 서울과 전남에 이어 제주(2,733원)와 경남(2602원), 인천(2,348원), 강원(2,338원), 경북(2,318원), 충북(2,305원), 경기(2,132원), 광주(2,221원), 충남(2,043원) 모두 2,000원대의 예산이 지원되고 있다. 이 때문에 초등학교가 무상교육임을 감안할 때 지역별·학교별 격차를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그간 교육부가 '학교 일리미' 홈페이지를 통해 급식비(=식품비+인건비+운영비)는 공개했지만, 식품비만 따

로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식품비가 포함된 급식비 역시 전국 최하위권에 머무는 불명예를 안았다. 전북의 급식비는 2,227원으로 전국 최고의 충북 5,015원보다 절반에도 못미친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전북은 전체 초·중학교 및 농어촌지역 고등학교는 교육청과 자치단체가 100% 급식비를 지원한다. 또 도시 동 지역 고등학교는 교육청에서 급식비의 50%를 지원하고 있다. 교육계 관계자는 "인건비는 영양사나 조리사의 정규직·비정규직 여부, 운영비는 급식시설의 차이에 따라 비용이 급격히 달라진다"면서 "식품비가 적으면 당연히 급식 질이 낮아지고, 급식의 질은 아이들의 발육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고인형 기자

### "저출산 극복 대책 마련을"

국회 김광수 의원(국민의당·전주갑)은 22일 저출산 극복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저출산 관련 간담회에서 "앞으로 5년이 우리나라의 저출산 극복을 위한 골든타임"이라며 "이동수당과 난임휴가제 등 저출산 극복을 위한 획기적 대책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는 15년째 합계 출산율이 1.3명 이하로 '초저출산국'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심각한 상황인데도 현정부에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는 고작 두 차례만 열렸다"고 정부의 안일한 대응을 비판했다. 김 의원은 "정부의 증세 없는 복지 기조는 허구임을 인식하고 저출산극복을 위한 획기적인 정책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시작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광영 기자

### 社 告

#### 참신한 인재를 찾습니다

전북도민과 함께 호흡하며 지역발전의 대안 역할을 다하고 있는 전주매일신문사가 제능과 열정을 갖춘 참신한 인재를 찾습니다. 정론직필의 사명감으로 지역언론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나가고 있는 전주매일이 따뜻한 가슴과 냉철한 이성, 창의적 사고와 진취적 자세를 겸비한 인재를 초대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구 분	모집인원	자격 조건
취재기자(경력·수습)	본사 0명	일기장 근무 경력자 우대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자

- ▶ 접수기간: 2016년 8월 31일까지
- ▶ 제출서류: 이력서 1통, 자기소개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 ▶ 전형방법: 1차 서류전형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 접수처: 전주시 완산구 서노송동 568-80 4층  
문의전화: 063-288-9700(본사 총무팀)  
e메일: jjmaeil1@hanmail.net

전주매일

### 전북현대, 오늘 AFC 챔스 상하이 상강과 맞대결

#### '꼭 이겨야 4강 진출 유리'

#### 이동국·김신욱 등 출전

전북현대모터스축구단이 23일 저녁 8시 30분 중국 상해 스타디움에서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 8강 1차전 상하이 상강과 맞대결을 펼친다. <관련기사4면> AFC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목표로 삼고 전진하고 있는 전북의 선수단 분위기는 최고조에 달해 있다. 지난 17일 인천 원정경기에서 3대0으로 승리하면서 전구단 상대 승리를 일궈냈다. 득점력이 살아나며 팀의 경기력이 상승했고, 일주일간의 휴식으로 선수들의 체력까지 충분히 비축했다. 전북은 1차전 원정 승리가 중요한 만큼 최상의 전력을 준비해 경기에 임한다. 이동국을 비롯해 에두, 김신욱 등이 원정 득점 사냥에 나서고, 이재성과 김보경, 이호 최강의 미들필드 삼각편대도 지원사격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김민근 기자

www.jjnh.co.kr

## 조합원님, 자식 같은 농산물 모두 팔아주는 농협을 만들겠습니다.

전주농협 산지유통센터 2016년 신축으로 전주시 통합마케팅 시스템 구축 로컬푸드직매장 10곳 개소로 영세농업인 소득향상

복숭아

장미

호박

마나리

배

조합장 임인규

상임이사 최동식 이사 김규태, 김남규, 김준표, 김태영, 김형수, 송재규, 송항용, 신동선, 유석용, 이성광, 주동현, 한의성

사외이사 김병윤, 심병연

감사 조미희, 유용주

전주농협농업동조합